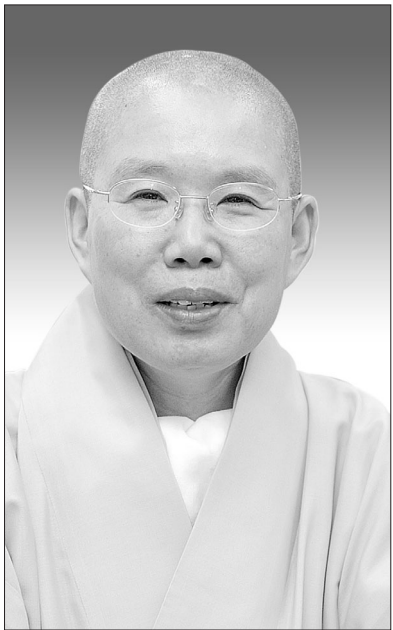


“불교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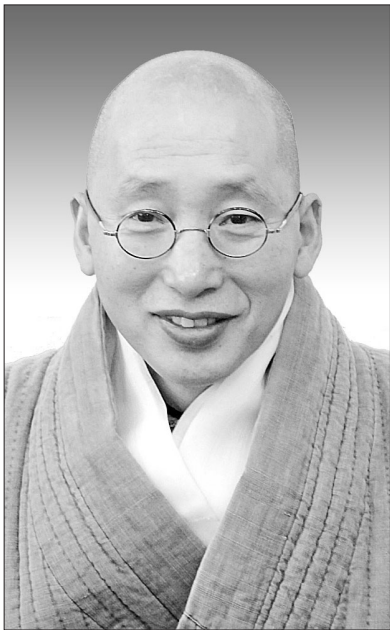
‘11대 핵심과제’를 말한다

⑧ 불교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용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월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3대 종무기조와 11대 핵심과제를 천명했다. 그 가운데 문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이 ‘불교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용’이다. “불교문화콘텐츠를 개발해 대중화하고 세계화 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는 이 핵심과제는 앞으로 어떤 방향과 계획으로 추진되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효탄스님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정산스님
부산 동명불원 주지·중앙중회의원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진다. 수많은 문화 분야 가운데 불교문화는 한국에서 문화의 보고(寶庫)로 칭해질 정도로 단연 돋보인다. 1700년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를 제외하고 전통문화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자체들은 일제히 불교문화를 관광 상품화해 수익 증대를 꾀하는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다. 경상남도 등이 추진하고 있는 2011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과 부산시의 U-범어사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템플스테이와 연등축제의 경우, 불교를 넘어서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한국불교 내부로 들어가면 상황은 여의치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문화의 보물창고이지만 무엇이 보물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또 ‘불교문화’라는 무궁한 원석들을 어떻게 가공해야

을 나타냈다. 정산스님은 “늦은 감이 있지만 불교문화콘텐츠 사업은 종단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며 “불교가 가진 무한한 자료는 개인이나 단체보다 종단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산스님은 불교문화콘텐츠 사업의 대중화도 중요하지만 고급화에도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간단한 기념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불교가 가진 아름다움을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향유하고 싶은 계층도 분명히 있다”며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대중화와 함께 고급화하는 작업도 별도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가톨릭 수사들의 일상을 영화화한 ‘아름다운 침묵’을 보기 위해 줄을 서고, 경비가 만만치 않은데도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기 위해 인도 다람살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적인 사례



지난 2월24일 열린 기금 전달식에 참석한 스님들의 모습. 왼쪽부터 봉은사 진화스님, 불교신문 사장 선록스님, 신홍사 주지 우송스님, 범어사 주지 정여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금산사 주지 원행스님, 은해사 주지 돈관스님, 대흥사 주지 법각스님, 청계사 주지 성행스님.

아이티 구호기금 8억원 돌파

통도사 화계사 등 본말사 두 차례 동참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티를 돕기 위한 불자들의 정성이 이어지면서 아름다운동행에 모금된 구호기금 총액이 8억원을 돌파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은 지난 2월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두번째 아이티 긴급구호기금 5520만원을 전달했다.

같은 날 오후 제3교구본사 신홍사,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제22교구본사 대흥사 등 교구본사를 비롯해 봉은사, 청계사, 불국사포교원 석가사 등도 대중들이 모은 성금을 전

달했다. 본지도 독자들이 보내준 정성을 모아 1556만4000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서울 화계사(주지 수경스님)도 지난 1월22일 1500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지난 2월 2차로 신도들의 동참을 통해 마련한 성금 1064만540원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국회 정각회가 지난 2월 24일 1만 달러(약 1160만원)를, 참여 불교재가연대가 지난 2월25일 560만원을 전달하는 등 모금에 동참하는 불자들의 정성이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억4708만8649원이 모금됐다.

염태규 기자

지진참사 아이티에 자비의 손길을!

- 성금모금 명단 (무순)

단 체	금 액
△동산법당사 10만원 △일산 법계사 30만원 △망월사 100만원 △내원사 30만원 △미국 대승사 64만7629원 △심우사 30만원 △대흥사 1175만원 △수원 용화사 150만원 △광산사 76만원 △경화 백련사 20만원 △신홍사 2905만5330원 △은해사 1110만 0000원 △범어사 2000만0000 △봉은사 1390만 5000원 △불교신문 1556만4000원 △청계사 100만 △석가사 300만원 △금산사 1000만원 △범화사 50만원 △국회 정각회 1147만4400원 △해월심 100만원 △정원 구룡사 100만원 △통도사도사 서관장 20만원 △울산 석남사 500만원 △협안 구고사 160만원 △부산 대원암 21만원 △동울산 포교당 100만원 △수도암 50만원 △부산 원광사 50만원 △의령 수도사 10만원 △부산 금화사 50만원 △통도사물원대중 141만3740원 △창령 각료암 10만원 △반아암 100만원 △양산 내원사 310만원 △밀양 보문사 10만원 △울산 선당사 50만원 △울산 문수사 200만원 △진주 성중사 20만원 △울산 밀봉암 36만원 △진해 무문정사 100만원 △부산 부처님마루 100만원 △부산 불암사 152만3300원 △울산 옥천암 202만5000원 △밀양 수덕사 100만원 △양산 보현정사 100만원 △밀양 무봉사 100만원 △구미 영명사 60만원 △인연 서래사 50만원 △부산 흥법사 100만	
△이원왕 11만원 △대한불교조계 11만1000원 △영이 1만원 △김명순 20만원 △석치연 1만원 △김승만 3만원 △홍영춘 10만원 △대한불교조계 10만원 △성우재 20만원 △죽림정사신도 30만원 △이의종 5만원 △대원정사신도 70만원 △신종석 1만원 △지유 10만원 △소진해 10만원 △김과순함양아 10만원 △자비 3만원 △최진숙 6만원 △정옥자 10만원 △하현희 50만원 △윤옥송 20만원 △오태선 5만원 △박상원(월보) 20만원	
(2월 23일~3월2일 오전10시) 기간합계 : 2억2031만8999원 총합계 : 8억4708만8649원	

- 자비나눔 계좌 : 동협 301-0029-6115-71 (예금주: 아름다운동행) 동협 053-01-247901 (예금주: 불교신문사)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불교신문
- 문 의 : 아름다운동행(737-9595) 불교신문(730-4488)

보물로 만들 수 있을지 방법론에서도 취약한 형편이다. 종단 차원에서 불교문화를 직접 챙기겠다고 발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준에 갖고 있는 불교문화(원석)를 콘텐츠화(보석)하겠다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그렇다면 ‘불교문화콘텐츠’란 무엇일까.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에 따르면 ‘불교문화인 건축·불상 등 유형문화, 불교역사·의례·불교설화 등 무형문화 등을 활용해 문자, 음성, 영상으로 구성된 콘텐츠 및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해 대중화 상품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한마디로 불교가 가진 모든 문화요소들을 현재에 맞도록 변화시켜 이해와 접근이 쉽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총무원 문화부장 효탄스님은 “예를 들어 불교설화라고 하면 이전에는 입으로 전해지거나 책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을,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인터넷, 게임, 캐릭터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며 “부처님의 대기법첩처럼, 불교가 가진 내용들을 현대인

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불교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용 범위에 무형문화가 포함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흔히 눈으로 볼 수 있는 불상과 법당, 불구 등 유형문화뿐 아니라, 연등회, 수륙제, 영산제, 예불 등 의례와 선(禪), 염불, 설화, 신앙 등도 콘텐츠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문화부는 그 까닭으로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꼽았다. ‘색즉시공’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인해 부처님의 공(空) 사상이 마치 성(性)과 관련 있는 낱말로 오해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세상에 나 혼자만이 최고라는 뜻으로 변질되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불교문화가 그 의미가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상업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올바르게 전달되기 위해서 종단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불교문화콘텐츠를 핵심과제로 선정할 종단은 우선 1차년도 목표를 현행 조사에

두고 있다.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 불교문화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한다는 것이다. 전통사찰 설화 등을 정리해 이야기로 만들어 저장하는 스토리 뱅킹 사업도 추진한다. 사찰음식 대중화 사업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심포지엄을 통한 교육 및 발전방안 강구, 인력 양성 등과 함께 경전 및 불전 콘텐츠, 불교소재 영화 제작 등 개별 콘텐츠를 개발하는 계획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최종 모습은 가정 ‘불교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이다. 효탄스님은 “진흥원은 영화나 애니메이션, 드라마, 인터넷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에 불교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스님이나 사찰이 등장하지 않고도 불교 사상과 부처님 가르침을 느낄 수 있는 정신문화 콘텐츠 개발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불교문화콘텐츠연구원 설립추진위원장 정산스님(부산 동명불원 주지, 중앙중회의원)은 종단 차원의 사업 추진에 환영의 뜻

로 꼽았다. 정산스님은 “우리가 가진 콘텐츠를 신문이나 방송사에서 만들어 불교계에 되팔고 있는 형편”이라며 “불교계가 콘텐츠를 개발해 자료로 만들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람들이나 세상이 원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불교문화콘텐츠 개발은 정부가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이는 문화부 측의 설명이다. 효탄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용을 위해 나서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 사업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며 “불교는 곧 전통문화와 직결되므로 불교문화 발전은 종교편향적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의 선양과 창달의 의미로 인식하는 속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승가대학 신입생·편입생 모집공고

대한불교조계종 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양사 승가대학에서는 2010년도 신입생·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정원 : 사교과 00명 / 사집과 00명 / 치문과 00명
- 모집기간 : 신입생(4월 8일, 양력)까지 편입생(3월 31일, 양력)까지
- 제출서류 :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은사스님 추천서 1부 - 건강진단서(종합병원) 1부 -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1부 - 승려증(행자교육필증, 수계증명서) 사본 . . 1부 - 사진(만의복장, 2×3규격) 4매
- 준 비 물 : 대가사 / 만의(사미) / 장삼 / 발우
- 전 형 : 서류심사 / 면접
- 원서교부 및 접수 : 승가대학 061)392 - 7324 중 무 소 061)392 - 7502

대한불교조계종 18교구본사
고불총림 백양사 승가대학장

고불율원 율원생 모집요강

고불총림 고불율원은 조선시대 대승,급담, 초의스님을 비롯,근대 만암, 서우스님에 이르는 계율정신으로 율맥이 깊은 청류암에서 30년간 백양강원을 주석한 율주 동성혜권스님의 고경조심(古鏡照心), 소욕지족(少欲知足), 지계청정(持戒淸淨)의 원훈아래 부처님의 지고지순한 행과 불법을 널리 선양, 계율연구에 매진하며 고불율맥을 계승할 율원생을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기본교육 졸업자 및 예정자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비구
- 모집인원 : 00 명
- 모집기간 : 3월 31일(양력)까지
- 교 과 목 : 사분율, 비니관요, 범망경 외
- 제출서류 :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기본 교육기관 졸업(예정)증서 1부 - 사진(2×3규격) 2매 - 승려증 사본 1부
- 원서교부 및 접수 : 고불율원(청류암) : 061)392-7506 중 무 소 : 061)392-7502

고불총림 백양사 고불율원
율주 동성혜권, 율원장 정공법장